


늦게 온 카네이션



이순원 글 | 이연주 그림 | 이순영 옮김 | 북극곰

#부모 #사랑 #카네이션 #가족 #추억 #이야기 만들기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	---	---	----

	<h2>등장인물 마음 읽기</h2>	이름 ()
-----------------------------------------------------------------------------------	---------------------	-------------------

1. 등장인물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 그림이나 이모티콘으로 나타내어도 됩니다.

<보 기>
궁금하다 감동적이다 고맙다 그립다 든든하다 두렵다 미안하다 슬프다 부끄럽다 자랑스럽다 활기차다 후회스럽다 흥미롭다

토끼 아주머니와 식당 주인의 대화		감정
식당 주인	“어버이날이 벌써 지났어요. 그날엔 안 다시더니 오늘 왜 달고 나오셨어요?”	
토끼 아주머니	“늘 말 안 듣고 말썽만 부리던 아들이 지난해 군대에 갔어요.”	
토끼 아주머니	“아들이 부대에서 보내온 건데 보내길 늦게 보냈는지, 오는 길이 멀어서인지 어제 저녁에야 도착했어요.”	
토끼 아주머니	“나도 꽃을 다는 날이 지난 줄 알지만 애써 보낸 아들 생각해서 일부러 달고 다니는 거라우.”	
식당 주인	“그랬군요. 늦게라도 꽃을 보내면 달아줄 어머니가 계시니 아들은 또 어머니를 얼마나 많이 믿고 의지하겠어요.”	
식당 주인	“그래, 가슴에 꽃을 단 날조차도 부모에겐 어버이날이 아니라 아들의 날인 게지. 왜 그걸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엔 몰랐을까.”	
식당 주인	어머니 보고 싶어요.	

2. 등장인물의 감정이 잘 드러나게 소리 내어 읽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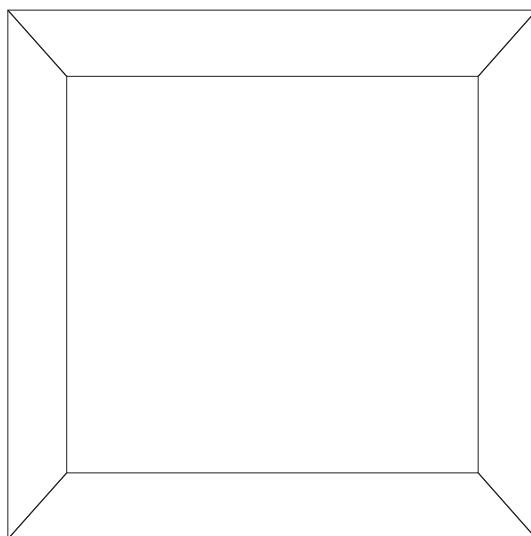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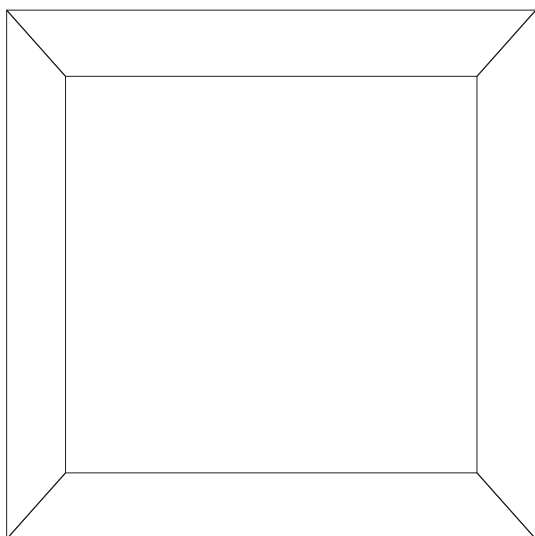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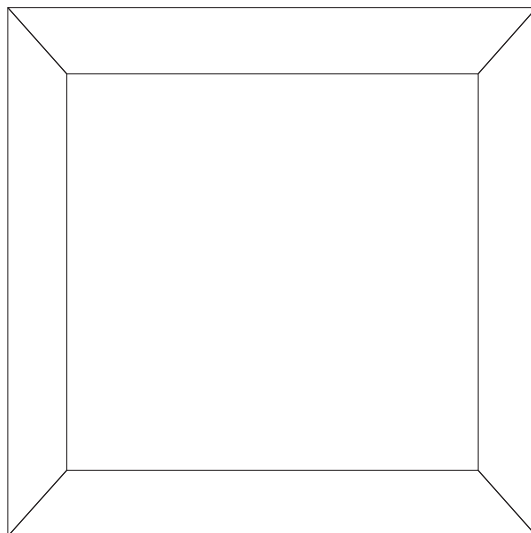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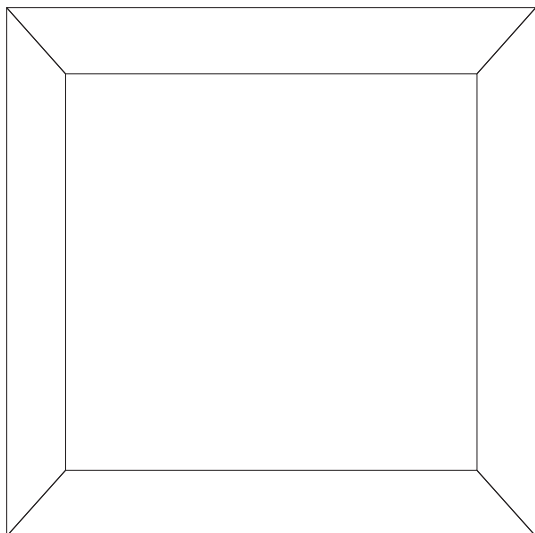
활동지2



추억이 담긴 가족 앨범

이름 ()

※ 가족과의 추억이 담긴 가족 앨범을 만들어 봅시다.



활동지3



내 마음 표현하기

이름 ()

1. 일주일 동안 가족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했던 말이나 행동을 적고 가족에게 받은 대답을 기록해 봅시다.

날짜	내가 한 말이나 행동	가족에게 받은 대답
/		
/		
/		
/		
/		
/		
/		

2. 활동을 끝낸 소감을 적어 봅시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 만들기 이름 ()

※ 장면마다 숨어 있는 생쥐를 찾아봅시다. 생쥐의 표정, 몸짓, 상황을 보고 생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상하며 생쥐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 첫 문장 예시 >

1. 화창한 봄날, 생쥐는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빨간 차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2. 생쥐는 어버이날이 이틀이나 지난 5월 10일에 마을로 내려갔어요.
3.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며 나무 위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본 생쥐는 채소를 가득 실은 빨간 트럭을 발견했어요.

제 목 ()

늦게 온 카네이션



이순원 글 | 이연주 그림 | 이순영 옮김 | 북극곰

#부모 #사랑 #카네이션 #가족
#추억 #이야기 만들기

주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기
권장 차시	5차시
대상 학년	3~4학년
교육 과정 연계	국어 [4국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4국03-0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나 행동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도덕 [4도02-01] 가족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가족 간에 지켜야 할 도리와 해야 할 일을 약속으로 정해 실천한다.
작성자	창원 도계초등학교 신동영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이순원의 감동적인 수필을 아름다운 그림책으로 만든 <이순원 그림책 시리즈>.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제5권 『늦게 온 카네이션』은 이 세상 모든 부모님께 보내는 카네이션 같은 그림책이다.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날에 모든 부모님의 가슴에는 붉은 카네이션이 피어난다. 카네이션은 곧 자녀들의 감사와 사랑이다. 하지만 『늦게 온 카네이션』은 어머니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어버이날이 이틀이나 지났지만, 토끼 아줌마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시장에 나왔다. 어버이날이 지났다고 모두 한 마디씩 참견한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토끼 아줌마는 꽃을 떼어 낼 생각이 없다. 도대체 토끼 아줌마에겐 어떤 사연이 있을까?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는 가슴에 꽃을 다는 어버이날은 어버이날이 아니라, ‘자식의 날’임을 일깨워 주는 그림책이다.

■ 학습 목표

- 책을 읽고 내용을 확인하며 나의 경험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다.
-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나 행동이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다.
- 가족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가족 간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어버이날이 이틀이나 지났지만,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 토끼 아줌마의 사연을 통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생각해보게 한다. 어버이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꽃, 바로 카네이션이다. 카네이션이 생각나는 빨간색 표지와 제목을 보며 카네이션이 왜 늦게 왔는지 상상해 본다. ‘까바 놀이’를 하며 즐겁게 책을 만나고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책을 읽으며 등장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은 인물의 마음을 깊게 이해하고 나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읽은 후 활동으로 가족과의 추억이 담긴 앨범 만들기, 시화 그리기를 하며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책 속 등장인물인 생쥐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를 상상해 보고 작가가 되어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활동은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가정의 달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이 책을 읽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길 바란다. 가족은 언제 어디서든 내 곁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수업 준비물 사진, 색연필, 사인펜 등

■ 학습 과정

읽기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제목 맞추기 이야기 상상하기 까바 놀이하기	1
읽는 중	그림책 함께 읽기 경험 나누기 등장인물 마음 읽기	2
읽은 후	<선택 활동> 1. 가족 앨범 만들기 2. 시 쓰기 3. 내 마음 표현하기	1
	이야기 속 이야기 만들기	1

읽기 전

1. 제목 맞추기

■ 제목 맞추기

- 표지를 자세히 보며 선생님이 제시하는 문장을 보고 이 책의 제목을 맞춰 봅시다.

1단계	7글자입니다.
2단계	□□▽□▽□□□□
3단계	붉은색과 관련됩니다.
4단계	꽃 이름이 들어갑니다.
5단계	ㄴ ㄱ ▽ ○ ▽ □□□□

- 제목은 무엇인가요?

예) '늦게 온 카네이션'입니다.

Tip. 교사는 '표지는 무슨 색인가요? 빨간색 하면 무슨 꽃이 생각나요?'와 같은 제시하는 문장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 학생들이 표지를 자세히 보며 제목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야기 상상하기

■ 이야기 상상하기

- 함께 읽을 책은 『늦게 온 카네이션』입니다.
- 이 책은 이순원 작가가 글을 쓰고 이연주 작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출판사는 북극곰입니다.
- 제목과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일지 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예)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깜박 잊고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 카네이션을 어버이날 다음 날에 드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어버이날이 평일이라 일요일에 할머니 집에 가서 카네이션을 드려서 카네이션이 늦게 왔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스승의 날 다음 날 학교에 카네이션이 늦게 배달되어 생기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3. 까바 놀이하기

■ 까바 놀이하기

- 제목과 표지를 보고 까바 놀이를 해 봅시다.

<p>A : 카네이션이 늦게 왔습니다. B : 카네이션이 늦게 왔습니까? 두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 : 두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토끼가 책을 보고 있습니다. B : 토끼가 책을 보고 있습니까? 파란 귀의 동물이 있습니다.</p>	<p>A : 표지가 빨간색입니다. 전체 : 표지가 빨간색입니까? B : 두 사람은 친구입니다. 전체: 두 사람은 친구입니까? C : 이 책의 출판사는 북극곰입니다. 전체 : 이 책의 출판사는 북극곰입니까?</p>
예) 짝 대화 까바 놀이	예) 개인-전체 까바 놀이

Tip. '까바 놀이'는 상대방이 말한 문장을 '~까?'로 바꾸어 말하는 놀이이다. '까바 놀이'를 읽기 전 활동에 적용하면 표지에서 보이는 것과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재미있게 짝과 주고받을 수 있다. A, B 학생이 짝 대화로 까바 놀이를 할 때, A가 '~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B는 A가 한 말의 어미를 바꾸어 '~입니까?'로 받아 말한 뒤 자신의 문장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 나가며 대화한다. 짝 대화 까바 놀이 후 같은 방식으로 개인과 전체가 까바 놀이를 할 수도 있다.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질문을 던지는 활동만으로도 책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

읽는 중

1. 그림책 함께 읽기

■ 책을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 면지에 누가 있나요?

예) 생쥐가 있어요.

- 꼬리에 무엇이 달려 있나요?

예) 노란 리본이 달려 있어요.

- 가방 안에 무엇을 넣고 있나요?

예) 간식을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무와 배추를 넣고 있어요.

- 생쥐는 어디로 갈까요?

예) 나들이를 갈 것 같아요.

여행을 갈 것 같아요.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 속표지에 무엇이 그려져 있나요?

예) 빨간색 카네이션이 그려져 있어요.

- '카네이션' 하면 어떤 날이 떠오르나요?

예) 어버이날 / 스승의 날

- 토끼 아줌마가 카네이션을 달고 채소를 팔러 나온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예) 어버이날이 지났는데 카네이션을 달고 있다고 웃었어요.

아직도 꽃을 달고 다닌다고 했어요.

5월 10일이라고 날짜를 말해주었어요.

집에 보관했다가 내년에 또 달라고 놀렸어요.

- 토끼 아줌마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표정은 어떤가요?

예) 토끼 아줌마를 놀리듯이 말하고 있어요.

토끼 아줌마의 행동이 재밌다는 표정이에요.

잘난 척을 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 화가 날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카네이션을 달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말할 것 같아요.

- 사람들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던 토끼 아줌마는 젊은 식당 주인의 묻는 말에 대답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 토끼 아줌마에게 예의 바르게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젊은 식당 주인과 토끼 아줌마는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 토끼 아줌마가 카네이션을 달고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군대에 간 아들이 보낸 카네이션이 어제저녁에 도착했는데 꽃을 다는 날이 지난 줄 알지만, 아들 생각해서 일부러 달고 다니는 것이라고 했어요.

- 식당으로 돌아온 식당 주인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토끼 아줌마의 이야기에 감동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슬펐기 때문이에요.

2. 경험 나누기

■ 경험 이야기하기

- 토끼 아줌마는 아들에 대해 '늘 말 안 듣고 말썹만 부리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말썹부린 적이 있나요?

예) 게임을 더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밥을 많이 안 먹고 편식을 했어요.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어서 부모님에게 야단맞았어요.

- 여러분이 말썹부렸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걱정되었을 것 같아요.

- 어버이날이 지난 줄 알지만, 토끼 아줌마는 카네이션을 달았어요. 토끼 아줌마에게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었나요?

예)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

- 늦게 온 카네이션을 단 토끼 아줌마처럼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든 경험이 있었나요?

예) 학교에서 만들어 온 어버이날 카드를 일 년 내내 냉장고에 붙여 두셨어요.

제가 캠핑을 하고 싶다고 해서 텐트를 사서 캠핑하러 갔어요.

제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맛있게 해 주세요.

- 젊은 식당 주인은 '어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언제 부모님이나 가족이 보고 싶나요?

예) 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니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요.

학원에서 1박 2일 캠프 활동을 갔을 때 잠자기 전에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코로나로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을 때 할머니가 무척 보고 싶었어요.

3. 등장인물 마음 읽기

■ 등장인물의 감정 알아보기 <활동지1 참고>

- 토끼 아주머니와 식당 주인의 대화를 읽고 등장인물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생각해봅시다.

예)

토끼 아주머니와 식당 주인의 대화		감정
식당 주인	“어버이날이 벌써 지났어요. 그날엔 안 다시더니 오늘 왜 달고 나오셨어요?”	궁금하다
토끼 아주머니	“늘 말 안 듣고 말썽만 부리던 아들이 지난해 군대에 갔어요.”	그립다
토끼 아주머니	“아들이 부대에서 보내온 건데 보내길 늦게 보냈는지, 오는 길이 멀어서인지 어제저녁에야 도착했어요.”	반갑다
토끼 아주머니	“나도 꽃을 다는 날이 지난 줄 알지만 애써 보낸 아들 생각해서 일부러 달고 다니는 거라우.”	고맙다
식당 주인	“그랬군요. 늦게라도 꽃을 보내면 달아줄 어머니가 계시니 아들은 또 어머니를 얼마나 많이 믿고 의지하겠어요.”	튼튼하다
식당 주인	“그래, 가슴에 꽃을 단 날조차도 부모에겐 어버이날이 아니라 아들의 날인 게지. 왜 그걸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엔 몰랐을까.”	후회스럽다
식당 주인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립다

- 짝과 역할을 나누어 등장인물의 감정이 잘 드러나게 읽어봅시다.

읽은 후

1. 가족 앨범 만들기

■ 추억이 담긴 가족 앨범 만들기 <활동지2 참고>

- 부모님이나 가족과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추억이 담긴 가족 앨범을 만들어 봅시다.

2. 시 쓰기

■ ‘가족’을 주제로 시 쓰고 다듬기

- 가족과 행복했던 순간, 즐거웠던 경험, 가족에게 주고 싶은 꽃이나 선물 등 ‘가족’을 주제로 시를 써 봅시다.
- 시를 소리 내어 읽어보면서 다듬어 봅시다.

■ 시화 만들고 낭송하기

- 시를 정리해서 글씨를 정성껏 쓰고 시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시화를 완성해 봅시다.
- 시의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실감 나게 읽어보고 시를 낭송해 봅시다.

<p>※ 포토샵(가독)과로 하여 달인 가족 앨범을 만들어 보세요.</p> 	<p>엄마</p> 	<p>가족 : 내가 원하는 선물</p> 
가족 앨범 만들기	'가족'을 주제 시 쓰기	'가족'을 주제 시 쓰기

3. 내 마음 표현하기

■ 가족에게 내 마음 표현하기 <활동지 3 참고>

- 가족에게 고마웠던 일을 떠올려 봅시다.
- 일주일 동안 가족에게 내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했던 말을 적고 가족에게 받은 대답을 기록해 봅시다.

예)

내가 한 말이나 행동	가족에게 받은 대답
오늘 맛있는 밥을 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고마워.
예쁜 옷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예쁘게 입어.
오늘 아빠 정말 맛있어요!	우리 아들도 맛있어!
(엄마 아빠를 안아주며)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안아주며) 감동이야. 사랑해.
언니,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동생아.

- 일주일 동안 가족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기'를 활동을 한 소감을 말해 봅시다.

예) 가족에게 고마운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했는데 매일 하니 어색하지 않았어요.

내가 마음을 표현하니 가족도 마음을 표현해 주어 서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4. 이야기 속 이야기 만들기

■ 이야기 속 이야기 만들기 <활동지4 참고>

- 그림책을 다시 한 번 보면서 장면마다 숨어 있는 생쥐를 찾아봅시다.
- 생쥐의 표정, 몸짓, 상황을 보고 생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상하며 짝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 생쥐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예)

생쥐의 위로

화창한 봄날, 생쥐는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빨간 트럭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트럭에는 생쥐가 좋아하는 과일과 채소가 가득 실려 있거든요. 트럭이 온 순간 생쥐는 짐칸으로 몰래 올라탔어요. 동네 사람들은 토끼 아줌마가 어버이날이 지났는데 카네이션을 달고 있다고 다들 한 마디씩 했어요. 생쥐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속상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생쥐는 아주머니를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생쥐는 작은 목소리로 “아주머니 힘내세요!”라고 말했어요. 생쥐의 위로 덕분에 토끼 아줌마는 젊은 식당 주인에게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 이유를 말해주었어요. 말썽부리던 아들이 준 카네이션이라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일부러 달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토끼 아줌마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생쥐는 두 번째 위로를 전했어요. “아주머니 괜찮아요! 늦게 단 카네이션도 멋져요!”

젊은 식당 주인은 음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식당 주인아줌마가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우는 게 아니겠어요? 생쥐는 세 번째 위로를 전했어요. “아주머니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계실 거예요. 힘내요!” 그리고 자신이 아끼는 노란 리본을 식당 주인에게 선물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 생쥐는 아이가 셋인 엄마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끔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던 식당 주인아줌마를 떠올려요.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노란 리본의 안부도 궁금해요.

Tip. 그림책을 다시 볼 때 교사는 ‘생쥐’를 중심으로 아이들과 다양한 질문을 주고받으며 생쥐의 표정, 몸짓, 상황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질문을 주고받은 뒤 개인, 짝, 모둠으로 이야기 만들기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야기 만들기를 어려워하면 첫 문장을 몇 가지 교사가 예시로 제시하거나 몇 단어를 제시하여 그 단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